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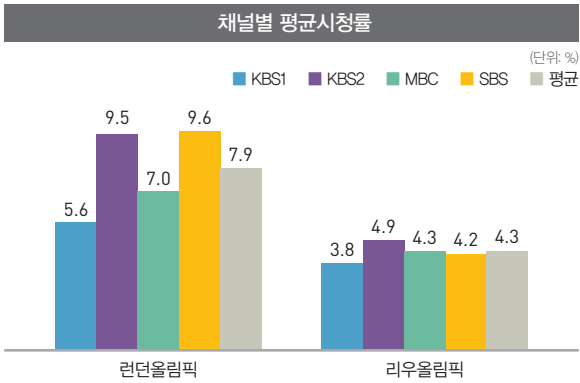
시청률로 본 리우올림픽

주요 경기 새벽시간대로 국민 관심 떨어져



지난 8월 22일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은 4년전 런던올림픽에 비해 시청률과 광고매출이 하락하며 그동안 스포츠 빅 이벤트가 광고시장에 불어온 훈풍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시청률 조사기관인 TNmS의 시청률 기록을 분석한 결과, 지상파3사 채널별 평균 시청률은 4.3%로, 런던올림픽과 비교하면 평균 3.6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메인 경기들이 주로 새벽시간대에 포진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.



*자료: TNmS, 수도권 가구 기준

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경기종목은 3사가 동시에 중계한 남자 축구 8강 대한민국 대 온두라스전으로 합계 34.0%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는 여자 양궁 16강전 장혜진 선수(31.7%), 기보배 선수(31.4%),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의 개인종합 볼 예선전(31.0%), 여자 배구 대한민국 대 일본전(30.1%) 순으로 조사됐다. 특히 112년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 여자 골프 금메달의 쾌거를 올린 박인비 선수의 경기도 4개 채널 합계 29.9%로 6위를 기록했다.



*왼쪽부터 기보배 선수, 장혜진 선수, 박인비 선수, 손연재 선수 순

동시중계 시청률 Top 10 (단위: %)

순위	중계 경기 종목	KBS1	KBS2	MBC	SBS	채널 합계
1	[축구 남-8강-대한민국-온두라스(8.14)]		15.0	12.3	6.7	34.0
2	[양궁 여-개인-16강 장혜진(8.11)]	4.8		18.2	8.7	31.7
3	[양궁 여-개인-16강 기보배(8.11)]		8.0	11.2	12.2	31.4
4	[리듬체조 여-개인종합볼-예선 손연재(8.19)]	13.2		6.2	11.6	31.0
5	[배구 여-A조예선-대한민국-일본(8.6)]		7.4	12.1	10.6	30.1
6	[골프 여-최종라운드-김세영, 박인비, 양희영(8.20)]	4.6	14.4	6.2	4.7	29.9
7	[양궁 여-개인-16강 최미선(8.11)]		7.0	10.4	10.8	28.2
8	[배구 여-8강-대한민국-네덜란드(8.16)]		9.8	8.9	9.0	27.7
9	[사격 남-소총복사50M-결승 김중현(8.12)]		10.9	11.6	4.9	27.4
10	[펜싱 여-에페단체-8강 대한민국-에스토니아(8.11)]			14.7	11.2	25.9

*자료: TNmS, 수도권 가구 기준

방송사는 중계권료와 제작비 등을 합치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. 지상파3사가 리우올림픽에 지불한 중계권료는 440억원(KBS 176억원, MBC 133억원, SBS 133억원)인데 반해 이번 광고매출은 런던올림픽의 44% 수준인 2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. **KAA**

이순임 기자 lee,soonim@gmail.com